

목탁 스님 미얀마 승려 최고 품계 받아

대승권 승려 최초로... 공양금 전액 고아원에 기부 보시행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수여받는 목탁스님



'미얀마 국제 승려 품수 수여식'에 참석한 각국 스님들

'미얀마 국제 승려 품수 수여식'에서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30여 년 미얀마 지원 공로 인정받아 미얀마 대통령 비롯 아웅산 수치 여사 등 참여

미얀마 연방정부 대통령이 주관하는 '2014 미얀마 국제 승려 품수 수여식'은 미얀마 최고 행사 중 하나로 미얀마 달력으로는 매년 음력 12월 15일 보름날에 개최된다. 미얀마 종교성 차관의 공식영점으로 10일 미얀마에 도착한 목탁 스님은 미얀마 수도 네피도르에 이틀간 종교성 및 문화성 장관들과 환담하고 이번 행사에서 함께 품계를 받는 123명의 각국 스님들과 상호 교류를 논의했다. 14일 종교성 왕궁 내 오옥 빠따 따피 파고다 강당에서 대통령 주관 공식 환영공양을 받았다. 공양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가서 및 공양물을 각 스님들에게 직접 올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미얀마 달력 음력 12월 15일 최대의 불교축제일에 품계수여 및 공양의식 대통령 주관 정부 공식 행사

목탁 스님이 수여받은 최고 품계는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로 대승권 승려로서는 최초 수여다. 품계 수여 여부는 미얀마 종교성 50여 국장들이 1년 여에 걸친 공적확인 작업을 통

해 결정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최종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진행됐는데 목탁 스님의 경우 수여심사 최초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목탁 스님은 30여 년 동안 미얀마 불교교류와 미얀마 내 고아원 운영, 필라진 학교 지원, 식수무물지원, 신부익식 지원, 화장실 지어주기, 기술대학 설립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최고품계를 품수한 목탁 스님은 향후 미얀마 내 모든 교통에 대한 편의와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최고 의전 등이 보장된다. 미얀마 품계는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가 최고의 단계로 '아까(AGGA)'는 '최고, 가장 위'라는 뜻으로 최고의 품수를 의미하며 '마하(MAHA)'는 '크다',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SADDHAMMA JOTIKAD HAJA)'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배운 성스럽고 의로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그 아래 단계로 '마하 사다마 조디까 하자 MAHA SADDHAMMA JOTIKAD HAJA'와 '사다마 조디까 하자 SADDHAMMA JOTIKAD HAJA'가 있다. 목탁 스님은 2007년에 최고품계 전 단계인 '마하 사다마 조디까 하자' 품계를 수여 받은 바 있다.



미얀마 연방정부 테인세인 대통령 내외(사진 오른쪽) 가서 공양 모습.



아웅산 수치여사가 목탁 스님에게 공양금을 보시하고 있다.



우싼신 종교성 장관내외가 보시하고 있는 모습



우켄웨이(경제수장, 국회의원)



테인세인 대통령 3시간여 동안 법회 주관

가장 높고 가장 넓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성스럽고 의로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미얀마 네피도=영양부 이동격부장 jab1522@hyunbul.com

국제 불교 지도자협회 봉사단 행사 동참



밍글라톤 아유디가 고아원 공양금, 보시품 모두 보시

공식 행사를 마친 목탁 스님과 봉사단 일행은 3월 16일 300여 명의 고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양곤 밍글라톤 인근 아유디가 사원(원장 아나야윳타) 내 고아원을 찾아 보시 받은 1200불의 공양금과 10개 포대 분량의 공양물에 한국에서 가져온 봉사단 공양물 모두를 전했다.

정성금, 공양품 모두 아유디가 고아원에 보시행 마정수기, 아웅산모소 참배, 쉐다공 파고다 순례

스님과 일행은 또 양곤 북쪽 흘라잉파야 지역 '한국기술대학'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4월부터 공사 재개를 확인했다. 이어 양곤 까바야 파고다에서 마정수기를 봉행하고 양곤 아웅산모소에서 추모기도를 봉행하였으며 미얀마의 상징인 양곤 쉐다공 파고다 순례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봉사단 일행은 10일부터 14일까지 바간, 헤호, 짜이티오 등의 성지순례 일정을 소화했다.

목탁스님 약력

- 現 미얀마 연방정부 미얀마 문화원장, 미얀마관광청장
- 現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
- 現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 現 외교법인 한국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이사장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現 법무부 교정위원 35년
- 現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 대통령 표창
- 법무부 장관, 종교성 장관 및 기관장 표창, 감사장 80여회
- 대한불교조계종 3회 포교대상 원력 수상
- 2007년 미얀마 대통령 'MAHA SADDHAMMA JOTIKAD HAJA' 품계 수여
- 미얀마 정부로부터 공로 메달 및 미얀마 불교수호협회로부터 공로메달 수여
- 2014년 미얀마 대통령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최고 품계 수여

'미얀마 국제 승려 최고품수 수여식'은?

'미얀마 국제 승려 최고품수 수여식'은 매년 동안거·하안거와 더불어 미얀마 3대 불교명절인 '더빠웅 라베'에 열린다. '더빠웅 라베'는 매년 음력 12월 15일 보름날에 열리는 불교최대 축제일로 1년 동안 수행의 성과를 이룬 스님들에 대한 품수와 함께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재가불자들에게 대한 포상 등이 진행된다. 또 이날에는 1년 간 불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정성금과 보시품을 스님에게 올리는 공양행사로 열린다. 이 공양행사는 대승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연출한다. 수여식을 마친 123명의 스님들이 오옥 빠따 따피 파고다를 나오면 파고다 주변 3km에 걸쳐 재가자들이 이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아웅산 수치 여사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이 시작

로 공양은 시작된다. 정성금은 물론 가사, 우산, 이불, 책, 건강용품, 쌀, 약품 등 공양물은 10개 포대 분량에 달한다. 이는 미얀마인들이 갖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번엔 진행된 '미얀마 국제 승려 품수 수여식'에서는 목탁 스님을 수행한 천운사 주지 진성 스님, 구룡사 주지 대연 스님 등 국제 불교 지도자협회 소속 스님들과 봉사단 18명도 함께 보시에 동참했다. 국제 불교 지도자협회 봉사단 회장 반야성(정영숙) 보살은 "목탁 스님의 섬없는 인간행성과 봉사실천이 성과를 이룬 것"이라며 "너무나 감격스러우며 하시는 큰 뜻에 작은 도움이나마 된다면 더욱 정진의 노력을 다하겠다. 더 많은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이러한 봉사 실천에 함께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아웅산 수치여사, 부통령, 상원 하원의장 32개 부처 장관, 정계 주요인사 모두 참석 3시간 동안 품계의식 진행 후 보시행사 공양금은 물론 각종 보시품 포대 10개 분량 보시 받아



덕터 우꾸마라 종정을 비롯한 미얀마 최고 승려들 모두 동참



미얀마 대통령 비롯 정계 인사 2천여명 동참